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유희 문화공간 제자리 찾기

# 빈 공간 '문지마 문화재생' 앞서 중장기 전망을

### 영상미디어센터 이전 예술인회관 활용 일찍이 제기 사라지는 공간의 기억 살려낸 재생 방식 고민할 때 "공간 재배치로 신축 걸맞는 인프라 확충 효과 기대"

제주도가 늘리는 공간을 문화시설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분주하게 벌이고 있지만 쓰임새에 맞게 제자리를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 지난 7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는 급기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사무실이 입주한 영상미디어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고 그 공간을 제주예술인회관으로 쓰자는 발언까지 나왔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으로서 '굴욕'적인 일이지만 문화계 일각에서는 일찍이 그같은 주장이 있었다. 문화시설이 차고 넘치는 듯 보이지만 문화계 사람들은 창작이나 발표 공간이 모자라다고 외치는 현실이다. 제주 문화공간의 재배치, 이 기회에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하늬뽀인 원도심 영화관인데..."=이즈음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가칭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 사업 계획이 알려질 무렵 제주도내 한 문화예술인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재밋섬이 아카데미극장에 이어 제주시 원도심 영화관의 전통을 잇고 있는 건물인데도 그같은 흔적을 살린 내부 시설은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문화예술인은 "재밋섬 건물은 리모델링해 공공 공연연습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반가움도 있었지만 원도심에 남아있던 영화관의 기억이 이대로 묻히게 되어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수 년째 활용방안을 놓고 고민중인 제주시민회관은 행복주택 전면

신축 입장에 맞서 존치를 통해 건축적 역사성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한 예술인은 "제주시민회관은 인근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가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시민공간"이라며 1964년 개관 이후 제주의 대표 문화·체육시설이었던 초기의 위상을 재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일이 있다. ▶왜 하필 그 시설인지 설득해야=영상미디어센터 건물은 당초 관광객을 위한 상설공연장이던 관광민속타운으로 지어졌다. 나중에 신산갤러리까지 들어서면서 공연장과 전시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했다. 영상미디어센터와 제주영상위원회 사무실로 쓰이며 한때 난타 공연장과 대관 전시실로 명맥을 잇던 두 공간은 영상문화산업진흥원 개편 이후 본래의 용도를 아예 잃었다. 이 때문에 활용이 제대로 안되거나 가동을 멈춘 유희시설에 문화적

숨결을 불어넣는 작업은 고무적이지만 자칫 주변 환경과 동떨어진 공간을 꾸밀 경우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제주문화재단이 앞서 옛 제주대병원 일부를 창작 레지던시를 중심으로 한 예술공간 이사로 바꾸고 탐라문화광장의 여관 건물을 사진갤러리로 산지전갤러리로 고치는 등 문화재생에 나섰지만 "왜 하필 레지던시이고, 사진갤러리인가"에 대해선 공감대가 약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더욱이 제주처럼 문화시설이 집적된 곳이 드문 경우 일부 공간은 이용자의 발길이 끊기는 '외딴 섬'이 되어버린다. 도내 문화계의 한 인사는 "새로운 문화 시설 건립 못지 않게 지금의 공공 문화공간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공간을 재배치는 하는 일도 그만큼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문화재생 역시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제주사람들 생애사 품은 유물 물나들이

도민속자연박물관 순회전 목포·부산서 잇따라 열려 내년엔 日 오사카전 계획



동고랑

제주사람들의 생애사가 담긴 유물이 물으로 향한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관장 정세호)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관장 박남배) 공동기획으로 '제주의 향기를 품다' 순회 특별전을 펼친다.

"제주사람들, 영 허명 살아수다"란 이름을 단 이번 전시는 탄생, 결혼, 죽음을 등 일생 의례에 담겨있는 제주의 삶과 문화를 꺼내놓는 자리다. 붓디창옷, 흥세함, 물허벅, 솜항, 구덕, 고



솜항

소리, 동고랑, 물질도구 등 박물관 소장 자료 50점과 사진 50점을 나란히 내건다.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전시는 이달 17일부터 10월 1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마련된다. 이 전시가 끝나면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에서 순회전을 갖는다. 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별도 전시를 통해 소장품을 다른 지역에서 선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국내 전시만이 아니라 내년 초엔 일본 오사카 순회전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9월 6일 취임해 지난 1년간 적극적 행보로 제주도 대표 박물관 위상 구축에 나서는 정세호 관장은 "자연사전시실, 민속전시실, 제주체험관 리모델링에 이어 내년에는 해양종합전시관도 새롭게 단장해 해양자원 관람 수요를 창출하겠다"며 "앞으로 제주문화 1번지로서 관람객이 중심이 되는 복합문화공간이자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선희기자

# 꽃·사람... 인도네시아 작가 제주 나들이

현인갤러리 매스디보 초대 이달 25일까지 교류전 열어



매스디보의 '스림피 댄서(Srimpi Dancer) IV'.

"나는 인생의 아름다움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그림을 그립니다." 50대 중반의 인도네시아 인기 작가 매스디보의 말이다.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로 일컫는 수라바야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가 화려한 색감이 담긴 그림을 들고 현인갤러리 초대로 제주를 찾았다. 마흔다섯번째 개인전이 되는 이번 제주 전시에서 매스디보는 30점 가량을 선보이고 있다. 꽃, 인물, 동물 등을 등장시킨 화폭은 강렬한 빛깔로 생명력을 뿜어낸다. 전시는 이달 25일까지 계속된다. 현인갤러리 김형무 관장은 "제주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미술 시장의 다변화, 국제화에 발맞추려 한다"며 인도네

시아에 이어 다음에는 말레이시아 작가 교류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갤러리는 제주시 노형동 도령로 50 이 화오피스텔 2층에 위치했다. 문의 064) 747-1500. 진선희기자

미술을 향한 청년들의 열정 서울대·제주대 학생 그룹전

미술을 향한 청년의 열정이 제주에서 만났다. 서울대 미술학부 학생 4명과 제주대 미술학부 학생 3명이 '2018년 3월'이란 이름으로 전시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제주대에서 조소를 배우고 있는 4학년 김시현 학생이 지난 1학

기 서울대에서 교류 수학을 했던 일이 계기가 됐다. 값진 경험을 쌓은 교류 수학생에서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서울대 학생과 제주대 학생들로 그룹을 만들었다. 전시는 지난 1일 시작돼 이달 15일까지 제주시 애월 해안도로 초계미술관에서 열린다. 평면, 입체, 영상 등 미술을 공통분모로 둔 대학생들의 패기와 도전이 담긴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문의 010-3025-0131. 진선희기자

제주신화 어린이 그림 공모 제주문화포럼 내달 2일까지

(사)제주문화포럼(원장 홍진숙)이 제주어와 함께 하는 제주신화 어린이 그림을 공모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제주도내 유치부,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신화를 주제로 4절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 보내면 된다. 크레파스, 수채물감 등 재료 제한은 없다. 작품을 접수할

때 학교, 학년, 이름, 자신이 그린 신화의 내용을 제주어로 표현한 내용을 덧붙이면 된다. 제주문화포럼은 상상력과 표현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를 벌여 대상(제주도지사상) 1명, 최고상(제주도교육감상) 2명 등 63명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응모작 접수는 10월 2일까지 이루어진다. 입상작은 제14회 제주신화전(2018년)과 제9회 제주·일본 신화교류전(2019년)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문의 064) 722-6914. 진선희기자

# 제주서 또 하나의 독립영화제 '흔디'

제주독립영화정기상영회 13~16일 메가박스 동서 경쟁 부문 독립단편 24편 개막작 '오리지날' 상영



제주흔디독립영화제 개막작인 '오리지날'.

전국 독립영화가 제주에 모인다. 제주 독립영화정기상영회와 제주흔디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서태수)는 제주 독립영화 문화 활성화와 제주영화문화 콘텐츠의 성공적인 안착을 취지로 '제주흔디독립영화제 2018'을 연다. 이번 영화제는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펼쳐진다. 전국에서 응모한 628편 중에서 예심을 통과한 독립단편영화 24편에 초청작과 개막작을 포함 28편이 스크린에 걸린다. 개막식은 13일 오후 7시30분부터 제주시 구좌읍 월정예비뉴 블루사운드에서 진행된다. 개막작은 쿠바, 하와이, 베트남, 평창, 봉영 등 국내외를 돌며 음악으로 제주 해녀 알리기에 도전하는 스카밴드 사우스카니발의 버스킹 여정을 담은 김연정 감독의 '오리지날(Original)'로 정해졌다. 식전 공연은 초청작 '참외향기'에 출연한 배우 소

선의 진행으로 주미성, 디오디오, 사우스카니발이 꾸민다. 초청작은 3편이다. 4·3 유족들의 한을 춤으로 위로하는 '제주, 년의 춤', 작은 마을의 이장선거를 둘러싼 갈등과 소통의 과정을 담은 '참외향기', 오목을 소재로 한 참신한 독립영화 '오목소녀'를 볼 수 있다. 경쟁 부문인 독립단편영화는 5개 섹션으로 나눠 메가박스 제주 7관에서 상영된다. 흔디대상, 관객상, 연기상 등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이중에서 '흔디경쟁 5' 섹션은 제주를 배경으로 한 신작들로만 구성됐다. 폐막식은 마지막날 오후 7시30분에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화제 홈페이지(www.jjiff.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4) 723-4108. 진선희기자

산지전갤러리 운영 토론회 원도심 활성화 전략도 논의

제주문화예술재단은 11일 오후 3시부

터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산지전갤러리에서 '산지전 갤러리 운영과 원도심 활성화 전략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는 라해문 마을만들기 운동가의 사회 아레 더 레퍼런스 김

정은 대표의 '산지전전 갤러리의 당위성 및 현황', 코리아 아트포럼 디렉터 한행길 대표의 '뉴욕을 중심으로 한 유희시설 문화공간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전략'에 대한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토론자로 사진평론가 이영욱·진동선씨, 한국사진작가협회제주도지회 김종현 회장, 제주민예총 강정호 이사장이 참여한다. 문의 064) 725-1208. 진선희기자

**취득**  
**관광학박사**

**강기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과장)  
(서귀중, 대기고, 중앙대학교)  
(부: 강희상(정방동주민자치 초대위원장) · 모: 오숙자)

제주대학교 관광학 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우회**

**취임**  
**대정읍장**

**김우숙**  
(임도 19세)

대정읍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주김씨양필공과대정읍총친회일동**

**취임**  
**서귀포시 부시장**

**김태엽**

서귀포시 부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중학교총동문회**  
회장 허상우 의 회원일동

**합격**  
**제8회 산업안전지도사**

**고형철**  
(건설안전기술사)

제8회 산업안전지도사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안벗.사**  
(고재언, 고민석, 장경국)